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백 탁 선**

A Study on the Chinese Western Part Development and
the Investment Promotion of Korean Firms in West Chin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한국 기업의 중국 서부지역 투자
증대 방안 |
| II.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 배경과 방향 | 1. 중국 서부지역 투자의 문제점 |
| 1. 중국 서부지역 개발 배경 | 2. 중국 서부지역 투자증대 방안 |
| 2. 중국 서부지역 개발 방향 | V. 결론 |
| III. 한국 기업의 중국 서부지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 | 참고문헌 |
| 1. 중국 서부지역의 특성과 투자 현황 | ABSTRACT |
| 2. 중국 서부지역 투자의 기대효과 | |

개 요

중국은 1980년대에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을 추구한 이래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 동부에 집중된 투자는 동·서부간에 극심한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좁히려는데 목적을 둔 서

* 본 논문은 2003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원광대학교 교수

접수일자 : 2003-5-10

게재확정일자 : 2003-12-10

부 대 개발전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서부지역은 중국 영토의 71.4%를 차지하고 국가자원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중국서부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투자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와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투자에는 많은 장애가 상존하고 있다. 즉, 비능률적인 행정은 공무의 진행을 더 복잡하게 하고 숙련 노동자와 고품질의 인력자원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수송체계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늘어나는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이 그곳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투자, 지역불균형, 개발, 인센티브, 인력자원

1. 서론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많은 나라로서 세계 500대 기업 중 400개 이상의 기업이 중국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IBM, 모토로라, 인텔, MS 등은 중국 현지에서 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직접 투자한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 수도 2만2천 여 개이며,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상반기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신규 투자가 22억7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다국적기업들 대부분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동부지역은 투자포화상태에 있다. 이 지역은 수익성이 높은 경공업, 소비재 산업 등의 생산요소가 집중 투입되어 자본과 자원이 낭비되는 중복투자과 업종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간 경제발전의 기초조건을 비교해 볼 때 동부지역이 과거 향유하던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임금과 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동부지역 발전의 중추역할을 하였던 노동집약형 기업은 업종을 전환하여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이제는 새로운 투자지역을 찾아야 할 단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서부개발은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서부 대 개발 전략을 제2의 개혁·개방이라고 일컬을 만큼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 삼아 이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광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활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거대한 투자기회와 시장잠재력 및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중국의 서부 대 개발은 향후 50년 간 혹은 100년 이상 지속될 장기 프로젝트로 기존의 동부지역 진출전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투자 자본도 크고 투자 후 자본 회수 기간도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진출 전에 장기적인 조사연구·정보수집·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서부개발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한국기업들이 21세기 중국지역 발전 전략의 화두인 중국의 서부 대 개발 전략에 보다 많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범위를 중국의 서부개발 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각국의 투자현황 그리고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지역 진출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다음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II. 중국 서부지역 개발 배경과 방향

1. 중국 서부지역 개발 배경

1) 서부개발 대상지역

중국의 지역구분은 현재 통상적으로 동부·중부·서부로 분류한다.* 서부 개발의 대상인 서부지역은 12개의 지역으로 6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 1개의 직할시를 포함하고 대상지역은 <표1>과 같다. 서부지역 12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총면적은 690만km²로 중국 전체 면적의 71.4%를 차지한다. 인구는 3억 5,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구분 기준은 단순한 지리적 기준이나 경제적 낙후가 아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네이멍구 보다 산시성(山西省)이 서쪽에 위치하며, 경제적으로는 같은 내륙지역인 중부지역의 낙후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서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여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 시켜 결과적으로 체제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1980년대 이래 동부지역에 포함되어 오던 광시

* 동부지역은 광둥성(廣東省), 저장성(浙江省),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1개 성과 직할시를 포함한다. 그리고 중부지역은 후베이(湖北), 지린(吉林) 등 8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 "21세기 중국의 大役事, 西部大開發", 「Issue Paper」 2003. 05. 26, p.27.

백 타 선

장족 자치구가 2000년에 서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소수민족 자치구이기 때문이고 비슷한 이유로 베이징구 자치구도 중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 30개의 소수민족 자치주를 지역에 관계없이 서부개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1] 서부개발 대상지역

구 분	지 역
성	꾸이저우(貴州省), 산시성(陝西省), 간수성(甘肅省), 칭하이성(青海省), 쓰촨성(四川省), 윈난성(雲南省),
자치구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신장(新疆)위그루자치구, 내이명구(內蒙古), 광시장족(廣西壯族), 시장자치구(西藏自治區:티베트),
직할시	충칭(重慶)직할시

자료 : 연구자 작성

2) 서부개발의 필요성

중국 정부는 연해지역 주도의 고도 경제성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유 기업의 경영 악화, 실업률 증가, 물가 하락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 서부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 6월, 장쩌민 국가주석이 산시성(陝西省) 시찰 중에 행한 강화(講話)에서 ‘서부 대 개발’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고, 동년 9월, 중국공산당 15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中全會)에서 개발방침을 확정하였다. 동년 11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지역경제구조의 조정, 지역경제의 촉진, 도·농간 경제협조발전’을 향후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의 주요내용으로 채택하고, 국무원 산하에 ‘서부개발판공실(西部開發辦公室)’을 설치하고, 정페이엔(曾培炎)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이 서부개발판공실 주임을 겸한다고 결정,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0년 1월, 국무원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西部地區開發領導小組)가 베이징에서 ‘서부지구개발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서부지구개발의 방향과 전략적 임무 등을 체계적으로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서부개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중국이 1979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이 전반적으로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 지역과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지역과의 경제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서부지역은 경제적 낙후로 기초시설이 취약하다. 수리시설이 부족하고 철도와

<http://www.seri.org/fr/fPdsV.html>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아직도 통신과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 그리고 농업생산 조건이 열악하고 공업기술 수준이 낮으며 서비스업의 발전도 저조하다. 서부의 교육 및 과학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종합 교육지식 발전지수는 전국 수준의 60%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에 대한 개방을 먼저 실시하면서 동부지역의 발전을 토대로 중·서부지역을 개발시킨다는 당초 전략의 실행시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2) 지역 간 산업재배치와 산업구조 고도화

동부지역 공산품의 대부분이 저 품질인 데다가 공급과잉 상태이고, 고품질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등 양적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동부지역만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양적 경제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부지역에서 도태된 기계설비를 서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국 내에서의 지역 간 산업 재배치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서부지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아연, 니켈, 티타늄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환경으로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이들 천연자원을 원재료 상태로 동부지역으로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기보다는 원료 생산기지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4) 정치·사회 안정

서부지역에는 56개 소수민족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신장(新疆)의 위그르족과 시장(西藏)의 장족은 독립을 바라고 있어 정치·사회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서부지역 개발은 이들 지역의 정치적 소요를 방지할 경우 지배체제에 동요가 있을 수 있다.

(5) 생태환경 보호

창장의 대홍수, 황화의 토사유실, 화베이 및 시베이 지역의 사막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전국의 험한 구릉경작지의 70% 이상이 서부에 있으며 토사로 인한 전체 토지 유실의 80%이상과 사막화의 90% 이상이 모두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부지역의 삼림 남벌, 무분별한 개간, 방목 등으로 생태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태환경의 보호와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 尹炳珽,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중국 서부 대개발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점”, 「월간무역」 vol.442, 2008.07, p.26

2. 중국 서부지역 개발 방향

1) 서부지역 개발의 목표와 중점 프로젝트

서부지역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제와 생활수준을 동부지역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서부지역 개발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제 1단계 개발초기(2000-2005)단계에는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주요기구수립과 홍보, 기초건설을 가속화한다. 중국정부는 서부 대 개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00년부터 10대 대형 프로젝트를 새로이 착공하고, 300억 위안을 투입하여 78건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업용수 절약방안을 전 지역에 실시 보급하고 서부의 인적 자원 지원을 위해 서부 대부분 지역에 9년 의무교육 제를 실시한다.

제 2단계 대규모개발(2006-2015)단계에는 1단계 기초시설 건설의 바탕 위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서부지역의 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우선 농업, 석유, 천연가스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대폭 제고시키고, 25도 이상의 비탈지 경지를 모두 임지나 초지로 환원시킨다. 그리고 황하와 장강 상류의 생태환경 건설과 사막화 방지 사업을 강화하여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토유실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지역 간 및 도시 내 기반시설 및 통신, 간선교통시설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제 3단계인 전면발전(2016-2050)단계에는 서부지역의 경제를 전방위로 발흥시키며 지역 중심도시의 도시화와 시장화, 그리고 국제화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킨다. 그리고 황하, 장강의 수목 복개율을 대폭 제고시키는 등 생태환경 조건을 현저하게 개선하여, 중점 생태환경 보호관리지역의 생태환경 관리사업을 양호한 순환체도로 진입시킨다. 이처럼 서부지역 개발은 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다.

중국정부는 향후 5~10년 간 투자를 집중할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과 생태환경보호, 과학기술교육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서부대개발의 대표적인 중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서기동수(西氣東輸)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지인 신강 타림분지에서 간수성, 닝샤회족 자치구를 거쳐 상해까지 4.212km를 가로지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일차로 2003년까지 총1,200억 위안을 투입해4.200km의 가스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2) 서전동송(西電東送)은 황하, 양쯔강, 산샤댐 등 대형 수력,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남, 중, 북 3개 전송망으로 나눠 화남, 화동, 화북지역으로 수송하는 계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획이다. 특히 1992년부터 추진되어 온 산샤 댐이 완공되면 홍수조절은 물론 연간 840억kw의 수력발전이 가능해지고, 내륙 깊숙이 있는 충칭까지 5,000톤급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게 돼 대규모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다.

(3) 남수북조(南水北調)는 장강 유역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가는 프로젝트다. 동 프로젝트는 징항(京杭:北京-杭州) 대운하를 거쳐서 천진까지 이어지는 1,150km의 동부노선, 호북하 남쪽 경계의 단강구 저수지의 물을 북경으로 공급하는 1,240km의 중부노선, 대도하, 통천하 등의 물을 황하상류로 공급하는 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황하의 단류 현상과 대홍수를 방지하고 수로 일대의 황무지 2,000만 ha를 농경지로 바꾸며 5,000만ha의 목초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수로가 통과하는 6개강의 농업 및 공업용수와 전력의 공급을 위해 대형 댐 19개와 총 발전량 2,120만KW인 발전소9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4) 팔종팔횡(八縱八橫)은 서부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교통과 통신분야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 10년 간 7,000억 위안을 투입해 서부에 35만km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총 연장 1,925km칭하이 -티벳간 철도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이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노선이 없는 지역을 연결하게 될 이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간에 건설되는 최장의 철도노선으로 기록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2개의 공항의 증축 또는 신축, 총 길이 3만 5천km중 1만7000천 km가 서부의 빈곤지역을 잇는 도로망 건설계획인 오종칠횡 프로젝트 등도 팔종팔횡의 주요 프로젝트이다.



[그림 1] 서부대개발 주요 사업

자료 : 인터넷 한겨레, 2003. 01. 15, <http://www.hani.co.kr>

2) 서부개발전략의 추진방향

중국서부개발 전략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0차5개년 계획(‘十五計劃:2001-2005’)기간 중 서부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 및 역량을 집중시킨다. 2002년에는 서부에서 동부로의 가스 수송 및 전력 송출 사업, 타림 하천과 헤이 하천의 정화사업, 샤오완 수력발전소, 서베이 가스 전 개발, 총칭장배이와 라사 공가 비행장 확장 건설 사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었다. 최근까지도 칭하이-티베트 철도, 가스·전력 및 대형 수리 관련 프로젝트, 도로 간선화 사업 등 ‘10·5 서부 개발 총 계획’이 확정된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 인프라 건설의 핵심은 교통, 전력과 통신이다. 각 현까지 송유관 건설, 향까지 전기 공급, 촌까지 TV방송 송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서부지역은 황하와 장강의 중,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막화, 황사바람 등의 영향으로 생태환경기반이 매우 취약하므로 생태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서부지역의 경사 25도 이상의 산비탈에 위치한 5,000만 무(畝, 1畝는 약 666.6m²)의 경작지를 모두 수목림지로 대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제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수원의 축적, 보존 능력의 제고를 통한 홍수 위험의 감소는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서부지역의 인력 및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시킨다. 서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또한 지역의 인재배양 및 각종 유인 정책에 따라 과거 동부로만 향하던 과학기술인재와 고등교육 졸업생들을 유치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노동력 수급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많은 취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넷째는 산업구조조정과 전통산업 개혁, 농업의 특화 등을 통해 선진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계획과 투자, 정책의 결합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기제(開發機制)를 건립한다. 그리고 서부지역 중 지역배치상의 조건이 우세한 지역을 우선 발전시킨다. 서부지구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간 및 성내 각 지구간에 자연환경, 생산요소, 경제·사회·문화적 기초 및 입지조건,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의 중요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지역별 개발잠재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의 완급과 지원의 경중을 구분한다

다섯째, 서부지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틀 속에서 동부 및 중부지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양호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동부지역은 보다 많은 세금 납부와 서부지구로의 기술 이전, 서부지구 각 지방과의 정무간 및 기업 간 자매결연을 통한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의 방식으로 서부지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여섯째, 개방화대를 통해 외국자본을 서부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서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투자에 각종 우대조치를 취한다. 서부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동부연해지역의 경제특구와 같은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기업들은 중국 서부진출에서 중국 서부개발이 장기성을 요하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합당한 대응방침과 진입전략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중국 서부진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은 우선 투자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업종과 투자방식, 그리고 투자적격 지역선정 등 진입 전략을 세우고 수행하여야 한다.

Ⅲ. 한국 기업의 중국 서부지역 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중국 서부지역의 특성과 투자 현황

1) 중국 서부 지역의 특성

중국 서부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기초시설이 취약하다. 수리시설과 교통시설이 미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과 전기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 따라서 중국정부도 이 지역에 도로, 통신 등의 인프라 기반구축을 비롯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 첨단산업개발, 환경보호 및 농업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로 제 「10차 5개년 계획」 및 「2010년 장기 경제건설계획」을 세워놓고 향후 10년 간 8조 위엔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농업발전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은 서부내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동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중복투자로 인해 산업구조가 동일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서부지역의 낙후된 교육시설로 인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원래 있던 인재들도 빠져나가고 새로운 인재들은 이곳을 기피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동부에 비해서 문맹률이 높아서 노동의 질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높고 오랜 공유체적 국영기업의 뿌리가 견고하여 시장경쟁의식이 부족하다.

이 지역은 독특하고 다양한 종교, 관습 및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다 상당 기간 외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중국 서부지역에 진출 시에는 마케팅, 영업은 물론 대인 관계까지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하지만 중국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향서한 장만 믿고는 모든 것을 현지 인에게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더불어 오랜 사회주의 관행에 젖은 서부지역 관리들의 관료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서부 대 개발 뒤에는 범접할 수 없는 자연환경과 복잡한 세금제도, 열악한 인프라와 여러 가지 지역적 한계점 등이 있으며 향후 10년 간 8조 위엔의 자금이 필요한데 한국은 아직도 구조조정에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바 중국서부지역에 대한 대규모투자는 당장은 어려운 실정으므로 조급한 투자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외국기업의 중국 서부지역 투자 현황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최대 투자자는 홍콩기업으로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분야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분야이다. 홍콩기업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과 자금 등 전반적인 분야의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현지 관습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1999년 말 중국에 진출한 178개의 외국건축회사 중 46%인 81개 사가 홍콩기업이다. 또 홍콩건축회사가 2000년 말 중국 내륙지역에서 도급을 맡아 건설한 프로젝트는 250여 개로 이는 외국기업이 건설한 프로젝트의 50%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청두, 충칭 등 서남지역에 8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제조업, 유통 등을 중심으로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다. 스즈키와 창안자동차(長安汽車)의 합작사인 창안스즈키(長安鈴木), 도요타와 청두이치(成都一汽)의 합작사인 쓰촨도요타(四川豐田), 유통업 분야에 진출한 이토요카도, 고베강철 계열사가 투자한 건설기계 사업 등이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이다. 「일·중 경제협회」를 청두에 설치하는 등 중·일간 정부차원의 협력도 비교적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정부는 쓰촨성 시창(西昌)의 조립 사업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구미기업들은 쓰촨, 충칭을 중심으로 투자기업과 사무소가 진출해 있다. 인프라 건설 분야로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고 쉘, 엑슨 모빌, BP,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 서기동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HP, 알카텔, 에릭슨, 모토롤라 등의 광통신, 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 분야의 진출도 활발하다. 미국 투자진출 기업 중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는 항공기엔진 및 관련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중국시장 및 해외에 판매하는 유니타이트테크놀로지를 들 수 있다. 또한 청두에 R&D센터를 설립한 모토롤라, 패스트푸드 업체 KFC, 맥도널드도 서부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시티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아직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3)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지역 투자 현황

1994년부터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 대상국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투자프로젝트도 대부분 소형이면서 노동집약형·수출가공 프로젝트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분포지역도 대부분 산동반도 등 환 발해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994년 이후 대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되면서 한국 투자기업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즉, 초기 한국 투자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자들이 설립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지로 진출할 힘이 없어 대부분 연해지역, 특히 산동반도에 집중되었던 것이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투자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투자지역도 확대되었다. 그들은 상해, 절강 등지에 확대되었을

* 삼성경제연구소, 전개서, p.27.

뿐만 아니라 광서, 사천 등 중국 중서부지역에 까지 깊이 침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 액에서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아직은 서부지역과의 경제교류가 미미한 상황이다. 2002년 우리나라와 서부지역간 직접 교역 액은 전년 대비 11.4%증가한 12억 5,010만 달러로 수출은 2억 8,184만 달러, 수입은 9억 6,826만 달러로 각각 15.8%, 10.3%증가하였고 주요수출품은 화공, 철강, 전자부품 등이며 광산물, 직물 류, 농산물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지역별 주요 수출 시장은 쓰촨성(9,700만 달러), 구이저우성(6,600만 달러), 충칭시(4,000만 달러) 등의 순이고 수입시장은 네이멍구(2억 3,900만 달러), 산시성(2억 1,400만 달러), 쓰촨성(1억 2,300만 달러)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 서부지역 직교역 품목이 원자재나 중간재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큰 규모의 다양한 제품들이 간접교역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것은 서부지역 기업들이, 연해지역 기업들이 수입한 외국산 물품을 재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수출도 연해지역을 이용하여 통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서부지역 투자진출은 외국 기업에 비해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서부지역 투자는 전체 중국 투자의 1.7%에 그치고 있고 투자기업과 사무소를 모두 합해도 진출기업은 40 여 개 사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공무역 위주의 중국 투자를 추진한 바, 대부분의 투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물류가 편리한 연해지역 및 동부 3성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서부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며 이들의 서부개척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1억이 넘는 인구에 이끌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서부는 외지인들이 범접하기에 결코 쉬운 땅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지방별로 내야 하는 세금은 결코 만만치 않다. 중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어 업체들이 물건을 운송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말에 공장을 연해에서 서부 내륙으로 옮겼으나 막대한 운송비에다 각 성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로 인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때문에 서부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동부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열악한 인프라와 시장 시스템은 한국기업들의 투자유인을 아직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2. 중국 서부지역 투자 기대효과

중국 서부개발은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진출에 있어서 매우 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서부대개발의 제 1차적인 과제로 고속도로, 철도, 항공로, 전력선

* 삼성경제연구소, 전게서, p.29.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설 등 기간산업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면에서 한국기업들은 이미 해외건설의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참여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중국 서부지역 투자진출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대 해 볼 수 있다.

1) 국내 에너지자원 부족의 해소

서부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는 국내 에너지 자원부족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개발은 서부 대 개발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외자도입을 통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부지역 가운데 청해, 영하 및 신강 등의 지역은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매장량도 무궁무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부지역 에너지 개발에 대한 참여는 국내 에너지 자원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중동 중심의 에너지 자원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서부지역으로부터 석유, 석탄, 광석, 면사, 모피 등 에너지와 원자재를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여 수입함으로써 자원획득의 다변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2)시장 선점 효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은 한국기업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투자기회와 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중국 동부지역의 투자는 포화상태로서 이미 동부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각 국 기업조차 동부지역의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중국 동부 연해지역 투자의 비교우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서부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으로 내수시장 개방이 예상되므로 개발초기 단계에 이 지역에 대한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서부지역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동부 및 중부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경시, 사천성 및 섬서성 등에 집중되고 있고 서부지역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는 서부지역 시장을 여타 외국에 비해 선점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3) 변경지역 우회진출 효과

장기적으로 볼 때 먼저 서부지역은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시장잠재력이 막강하다. 특히 경의선 복원과 더불어 한반도와 중국-유라시아가 연결되는 대륙 교류권 형성을 고려할 때 서부개발 참여는 유라시아 및 유럽 각국과의 경제 무역 교류 경로를 확대할 수 있다. 운남 및 신강 등 변경지역에 대한 투자는 인근국가에 대한 우회 수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 서부지역은 인건비가 싼 반면에 동부 연안 주요 항구까지의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지향형 투자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운남성은 인도차이나 반도, 신강 자치구는 중앙 아시아 지역과 활발한 변경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운남, 신강 지역에 대한 투자는 변경지역 및 국가에 대한 우회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는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에서 활동중인 기존 투자기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환경오염 방지 효과

서부 대개발 전략에는 생태환경 보호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환경오염 방지도 기여하게 된다.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장강 상류지역과 황하 중상류 지역의 자연림 보호, 황무지 녹화 및 경작지를 삼림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동부지역의 환경오염 악화 방지로 북경, 상해 등 동부지역에 산성비가 자주 내림에 따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NO_x, SO_x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북경 및 상해 등 중국 동부지역의 환경오염 감소는 인접해 있는 한국의 환경 오염 감소와도 직결이 된다. 따라서 중국 서부지역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환경오염 방지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IV.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서부지역 투자증대 방안

서부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발전 가능성이 큰 미개척 시장이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연해지역에서 후발자로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서부는 시장 선점을 위해 구미나 일본 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모든 외국기업들이 거의 동일한 출발선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부지역의 전체 소득수준은 낮지만 청두, 충칭, 시안 등 대도시는 1억 명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떠오르는 거대시장으로 인구 1,100만인 청두의 2002년 일인당 GDP는 중국 평균의 2배 이상인 1,984달러이

고 세계 최대의 도시인 충칭은 중국의 3대 자동차 생산기지로서 연간 승용차 판매량이 7만대를 상회한다.* 중국은 인건비가 싸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시장이 크다는 우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이 있다.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면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리하므로 여타 발전도상국의 대 중국투자에서 찾을 수 없는 관리측면의 우위이다. 중국 서부의 발전은 이러한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서부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1. 중국 서부지역 투자의 문제점

1) 서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전략 미흡

서부 각 지역은 대동소이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서 서부지역간 우위산업구조의 동일화가 우려된다. 서부지역개발 전략은 도로·통신 등 인프라 기반, 에너지 및 광물자원개발, 첨단산업개발, 환경보호 및 농업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농업 발전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은 지역별로 큰 차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부지역에는 다양한 종교 및 소수민족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 된 우위산업유치 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서부지역도 동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중복투자로 인해 산업구조가 동일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진출 목적에 따라 중국 서부 각 지역의 투자환경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서부 대 개발 진출의 목적이 뚜렷할수록 지역별 우위는 그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서부의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국내 생산 여건이 어렵고 중국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이 생산 코스트 측면에서 절감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중국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대규모 투자 자금 부담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의 효과를 가져오며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는 국내 환경오염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된다. 서부 대 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은 제 「10차 5개년 계획」 및 「2010년 장기경제건설계획」을 통해 향

* 삼성경제연구소, 전게서, p.32.

후 10년 간 8조 위엔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8조 위엔이라는 금액은 1999년 중국 GDP와 필적하는 금액이다. 1999년 중국의 재정수입은 약 1조 위엔이었으며 이 가운데 건설관련 투자지출은 약 2,000억 위엔 정도였다.* 연간 2,000억 위엔의 금액이라면 10년 동안 투입 가능한 금액은 2조 위엔이며 이는 당초 계산된 8조 위엔의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금조달도 연간 2,000억 위엔이라는 금액이 모두 서부지역개발에 투자된다는 가정을 해봐도 이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가정이다. 따라서 서부 대 개발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외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결국 중국의 서부 대 개발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성공적인 도입여부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한국은 IMF 관리체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아직도 국내 구조조정에 많은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바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자는 어려운 상태이다. 중국 당국도 서부지역 내의 자본공급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부족한 자본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일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서부진출에서의 곤란을 조성하고 있다. 건설분야 같은 데에는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해외차관공사의 경우는 소규모 단위로 분할 발주하고 있으며 인력위주의 시공을 하고 있는 등이다. 따라서 자금과 공사를 분리하고, 해외 입찰 시 적정 규모로 발주하며 상당한 유휴장비와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중국 자국기업에 비해 떨어져 사실상 공사참여는 어렵다. 또한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의도했던 투자효과를 거두지는 미지수이다. 중국 서부지역 시장의 크기도 투자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우선적인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를 수반하지만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투자환경 특히 제도 관습 등에서 사회주의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화 정도를 나타낸다. 즉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도 제도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투자수익을 거두어들이기가 어려운 바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의도했던 투자효과를 조기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3) 인프라 기반 미비와 기술인력 부족

(1) 인프라 기반 미비

서부는 동부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다. 지형적으로 중국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현상이다. 전 국토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서부지역의 도로길이는 전국의 30%에 불과하고 그것도 92%가 2급 수준 이하의 도로이다. 철도망의 경우도 서부

* 산업자원부, 「중국의 서부지역투자환경 및 진출방안」, 2001, pp.228~229.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지역은 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수로 또한 부족하다. 수로는 주로 하천과 호수 및 해안선을 이용하였는데 하천은 전국에 5만 여 개로 통항이 가능한 길이는 모두 5만4,000km이고 통항이 가능한 호수도 900 여 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로체계의 80%가 양쯔강과 주강 하류인 남방연해지역의 상하이, 장수, 저장, 후베이, 후난과 광둥 등에 집중해 있다.* 이러한 턱없는 교통망 부족으로 투자시기에 운송원가가 높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관저우에서 국유 회사인 광둥창과 합자회사로 컴퓨터 등의 예비 비상전원인 'UPS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 한국기업은 생산전량 전부를 텐진항을 통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수출하는데 물류비용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는 월 평균 300~400위엔 정도밖에 안되어 저렴하지만 8t컨테이너 분량의 상품을 텐진까지 운송하는 트럭운임이 무려 200만 위엔으로 수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철도를 이용하면 관저우-텐진의 운임이 3,000 위엔에 불과하지만 운송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 납기일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철도운송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서부지역자원의 비교우위를 상쇄하는 주요 원인이다. 교통·통신 등 인프라 기반의 미비는 서부 대 개발 전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 서부지역의 낙후된 교통과 통신시설 부족은 물류와 정보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이 서부지역에 투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기술인력 부족

서부지역은 문맹률이 가장 높은 지구이다. 현재 중국의 문맹, 반 문맹률은 26.8%이고**서부의 시짱과 같은 문맹률은 40%이상, 반 문맹률은 70%이상이다.*** 물론 서부지역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광시, 신장, 네이멍구, 쓰촨은 전국수준에 근접하거나 약간 낮고 쑤시는 전국 수준보다 약간 높다. 이외의 6개성 자치구는 놀라울 정도로 아주 높다. 이 같은 높은 문맹률 때문에 노동의 질이 아주 낮아진다. 또한 서부인들은 그 지리적 환경, 역사적 요소 및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며 무위안일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유제적 국영기업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어 아직도 평균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고 시장경쟁의식이 지나치게 박약하다. 서부지역에는 교육시설이 동부 및 중부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바 서부지역 개발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열악한 자연환경과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생활상 많은 어

* 김미순, “중국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진입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2002, pp.61~62.

** 동부의 베이징, 텐진, 료우닝, 상하이, 광둥의 문맹률은 8%이다.

*** 김미순, 전개논문, p.62.

백 탁 선

려움을 겪음으로 원래 있던 인재들도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들도 이곳으로 오려하지 않는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서북지방에서 동부연해 및 기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과학기술인력은 무려 전체의 1/3인 3만 5000여명이라 한다. 또한 1990년이래 서부에서 외지대학에 나가 공부하는 대학생 중 절반이상이 졸업 후 서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서부지역이 당면한 인력문제는 기술인재의 층이 얇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또한 아주 낮다는 것이다. 과학시설 또한 동부지역에 비해 크게 미달되어 있어 주요 서부개발전략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외지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들을 끌어들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여타 지역으로부터는 고급인력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전문 인력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중국 내 기업의 강력한 도전

노동집약 및 저급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격심한 경쟁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서부의 각 지역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서부지역의 인프라 미비, 에너지 사정악화 등으로 인해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부지역 유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 또는 노동집약 산업 분야에서 동부지역의 기존 중국기업의 서부로의 입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집약형 투자 또는 변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한국 기업은, 제도 및 관습 측면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동부지역에서 선진 경영 노하우를 터득한 중국기업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2. 중국 서부지역 투자 증대 방안

1) 서부 각 지역별 차별화 전략

같은 서부지역이라도 각 성마다 특성이 있는 만큼 지역과 업종에 따라 진출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중국 서부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발 정책은 [표 2]와 같다.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표 2] 지역별 개발 정책

지 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요 개발 전략
重慶市	- 창장(長江)상류 지역의 경제 중심지 육성 -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 자동차 등 4대 분야 중점 육성 - 팔시장 등 서부지역 자본시장의 중심지로 육성
四川省	- 서부지역 중추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력 - 전자 및 정보통신, 기계, 수력발전, 식품가공, 화학, 의약·관광업 등 6대 산업 중점 육성
貴州省	- 지역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四川, 雲南 등지와와의 협력 도모 - 담배, 전력, 알루미늄, 인광 관련 산업 육성
雲南省	- 인근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 교류 확대 - 담배, 의약, 화훼, 문화·오락, 기계, 건축자재 및 유통업을 6대 비교우위산업으로 육성
陝西省	- 동부와 서북·서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발전 - 첨단기술산업, 관광, 사과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군수산업의 민수화 추진
甘肅省	- 축산업과 밀, 옥수수, 한약재 등의 특색산업 육성 - 정유·화학·천연가스의 종합가공기지 건설
青海省	-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리시설 확충에 역점 - 목축, 소금·석탄·동·아연 등을 이용한 특색산업 육성
寧夏自治區	- 포도주, 감자 등 특산물의 산업화 추진 - 취약한 수리시설,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 확충에 역점
新疆自治區	- 원유와 면화 등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축산, 건축자재 산업 지속 육성
內蒙古自治區	- 사막화 방지, 경작지 환원 등 생태환경 개선과 보호 추진 - 양모·피혁 산업, 회토금속 산업, 천연가스·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산업 등에 역점
廣西自治區	- 중국 서남부의 해양진출 거점 지역으로 발전 -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동부지역 송전 - 알루미늄, 펄프, 천연가스 중심의 임해공업단지 조성
西藏自治區	- 티베트의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

자료 : 산업자원부, 「중국의 서부지역투자환경 및 진출방안」, 2001, pp.29~50을 인용 연구자 재작성.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더 좋은 투자조건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서부지역에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와 준비가 필요하다.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은 중국의 서북부 쪽에, 금속자원은 서남부 쪽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서부지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은 중경, 내몽고, 섬서이고 그 중에서도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인구가 많고, 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중경, 운남, 광서가 유리하다. 현지 생산·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내몽고, 섬서, 영하가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내구소비재 시장의 경우에는, 서부 지역의 소득수준

백 탁 선

이 낮아 보급률이 높지 않으나 서부 대 개발과 함께 소득이 향상될 전망이며, 특히 소득 수준, 인구밀도, 소비지출 및 경제활동 수준으로 볼 때 중경과 운남이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분석된다. 인프라 건설 및 건설장비 시장의 경우 서부지역의 성별 고정자산 투자액과 재정수입으로 보면 중경 등 서남부 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나, 서부 대 발이 본격화 될 경우 지하자원이 풍부한 신강, 청해, 감숙 등 서북부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도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건설장비 및 건축자재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생태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취해 다원화 된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생태환경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과학기술 난제 돌파를 강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히 보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의 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일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서부 관광자원의 비교우위와 관광산업의 발전추세에 기초하였을 때 관광업은 서부 개발에서 서부의 산업구조를 합리화하고 발전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경제성 장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관광업의 强省, 强市, 强縣을 건설하여 관광업을 서부지역의 중점산업과 지주산업으로 조속히 육성하는 것이다. 한·중간의 관광업은 양호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보다 빠른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 서부 대 개발 과정에서 관광업에 참여하면 보다 큰 발전여지가 있을 것이다.

2) 합자 또는 합작을 통한 경영의 현지화

서부지역은 독특하고 다양한 종교, 관습 및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다 상당 기간 외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케팅, 영업은 물론 대인 관계까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유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 100%단독투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영권 행사를 단순하고 유리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투자자금이 소요되지만 투자수익금 회수를 단시간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여로 사항 타개에서의 현지 협력 지연과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인의 반감 조성 등 단점도 있다. 따라서 투자 진출 시 무리한 단독 투자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지와의 합자 또는 합작을 통해 경영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현지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현지 정부와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토지, 전력, 용수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정부측의 지원을 얻기 용이하다.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과 인맥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의 유력한 합작 파트너와 함께 소규모 프로젝트

트를 수행하면서 초기 사업환경 분석과 인맥 형성에 주력하고 문화와 제도 차이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원가 계산에 포함시켜 진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랜 사회주의 관행에 젖은 서부지역 관리들의 관료주의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부지역의 중하위 관리들은 동부지역과는 달리 오랜 기간 외부세계와 단절된 까닭에 여전히 비개방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투자 실적을 위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무사 안일한 업무 태도, 부패 등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3) 한·중 협력 인프라 조성 및 기술인력 확보

서부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기업들의 높은 투자 리스크를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자국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인 각 국 정부차원의 서부지역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3년 1월 중국 농업부와 서부지역 농촌 에너지원 재생프로젝트에 33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티베트의 대외개방,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정부의 한국 기업 지원기관으로 성도에 코트라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서부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경영 애로를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무관의 성도 또는 중경에 증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서부 대 개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의 충실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 서부 지역은 남한의 무려 54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며 교통도 불편한 지역이 많아 이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특히 자금 및 인력의 제약이 큰 중소기업으로서는 단독으로 효율적인 진출 환경 조사가 매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민간 기업의 중국 서부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 관한 기초 판단 자료의 체계적인 공급에 역점을 둬으로써 중국의 서부 대 개발에서의 한·중 협력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 및 서부의 성·시·자치구의 서부 대 개발 관련 정책, 산업 입지, 산업정책, 산업별 수급 현황 및 전망, 중점기업의 기술수준 평가 자료, 중국 측의 투자 유치 희망분야 등의 진출 타당성 조사의 기본 자료를 중국 측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업종별 협회 및 개별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부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고 신기술 산업 개발구'는 지방의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방 정부 또는 공단과 이들 개발구를 연계하여 양국 지방의 비교우위를 상호 접합시키면,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진출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개발구는 비록 지방에 설립되어 있더라도 중앙 정

부의 간접적인 통제와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지방 정부 및 공단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이니셔티브 발휘가 긴요할 것이다.

중국 서부지역의 기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재유치, 인재확보 및 인재를 통한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제정한다. 급여개혁과 함께 변경지역에 합리적인 수당제도를 수립하고 서부지역의 기관 및 사업기관 직원의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전국의 평균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서부개발의 중점업무,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 중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좋은 직장 및 양호한 생활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전문가들이 서부개발에 적극 참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한국기업의 다양한 기술 우위 산업 투자 모색

서부 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진출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SK는 서부지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중·서부 지역을 선점한 한국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 LG, 현대 등이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지역을 공략한 반면 SK는 2003년 1월 6일 쓰촨성 쑤궁에서 삼양사와 합작사인 폴리에스테르 생산업체 휴비스의 기공식을 가졌고, 내년 7월부터 쑤궁과 이빈을 철도로 연결해 생산제품을 양쯔강의 하운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 팔 예정이다. 수출품은 도로로 두 시간 거리인 충칭까지 운반해 3천t급 선박에 곧바로 실을 계획이다. 중국 명주 우량액(오량액) 공장이 있으며 이빈은 이미 2002년 12월 부두 7개 가운데 2개를 컨테이너 부두로 만들었다. SK는 2003년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과 아스팔트 합작 공장을 세우기 위해 전문팀을 구성해 작업 중이다. 또 서부지역의 생약원료 개발 등 생명공학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독자기업인 중국 파리엔 연흥 과학기술 개발 유한공사와 (주)대우엔지니어링은 합작 및 합자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 울가울 허츠 공항건설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리엔 연흥 과학기술 개발유한공사는 통신과 토목건설부문을 대우엔지니어링은 레이더와 건설부문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허츠 공항은 중국 국가민항총국 서부공항기획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건설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은 3억 9,303억 위안이며 2년 후인 200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허츠시는 서부지역 경제 중심지인 난닝(南寧), 꾸이양(貴陽), 쿤밍(昆明)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 2010년에는 연 15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허츠 공항 건설로 서부지역의 항공 교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룡탄수력 발전소 등 중

* http://www.kita.net/chinanews/kobz_chinanews_t_viw.jsp?seq=380§ion=03§ion=03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

점공정과 여행자원개발에 일조 하게 될 것이다. 제일계당은 2002년 300만 달러(36억 원)를 투자해 돼지 사료를 임·가공 생산하고 있고, 진광 실업은 쓰촨성에 돼지가 사람 수보다 많은 1억 마리라는 장점을 살려 돼지가죽을 이용한 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면양가에막 전자재료 유한공사가 2001년부터 독자법인으로 프린터 잉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특로과 유한책임공사도 지능형 교통관제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청두, 충칭의 고속버스 사업에 진출한 대우(1995년, 450만 달러)와 금호(1995년, 450만 달러)는 조기에 진출한 까닭에 초창기 어려움이 컸지만 현재는 독자경영을 하는 현지 운수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 밖에 IT, 의류, 교통, 광산 등의 분야에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서부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따라서 시장점유와 경영환경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내 기업에 맞서기 위해 한국기업들은 중국내 기업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다양한 산업의 투자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V. 결 론

중국 서부는 자원이 풍부하며 중국 전체 면적의 71.4%를 차지하고 인구는 3억 5,6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도로 통신 시설 등 인프라가 미약하고 유효수요와 노동의 질이 낮은 지역이다. 현재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 개발 전략은 기초시설 건설을 바탕으로 생태환경의 보호와 건설, 산업구조 조정, 과학기술교육과 인재육성, 대외개방 등을 통해 부강한 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부지역에 비해 아직은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만큼 투자에 앞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세부조치와 지역별 투자환경, 프로젝트 등을 주시하고,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 서부지역 에너지개발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자금부담이 높고 가시적인 투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으며 중국 동부지역에서 선진 경영 노하우를 터득한 중국기업들이 서부로 이주 할 때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중국의 서부지역은 다양한 종교와 관습.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비교적 강한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 영업·광고·대인관계에서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서부지역 진출 시 무리하게 단독투자 진출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지와의 합자 또는 합작을 통해 현지인의 적

백 탁 선

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부지역에는 제도적, 관행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과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중국 서부에 대한 진출가능성을 검토 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 관한 기초 판단 자료의 체계적인 공급에 역점을 두고 중국 서부개발에서의 한·중 협력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에 서부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해야한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국내기업과는 동반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외국인의 투자영역을 한층 확대하고 외국자본이 서부지역의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른 진입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실시하면 대량의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서부지역 각 성별 투자환경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서부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알림으로써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오래된 기업을 개조하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경로, 다양한 형식으로 전 방위의 경제기술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은 중국만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참여와 협조로 양국 간의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중국 서부 대개발의 허실(虛實)과 한국 참여의 실익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서부지역을 통틀어 거시적으로 보는 연구가 아닌, 소 지역(성, 시, 자치구 별 등)별 또는 중 범위 지역(서남지역, 서북지역 등)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 또한 아쉬웠다.

참 고 문 헌

- 高國力,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 전략”, 한국 수출입은행, 2002. 02.
- 김미순, “중국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진입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2002.
- 산업자원부, 「중국의 서부지역투자환경 및 진출방안」, 2001.
- 삼성경제연구소, “21세기 중국의 大役事, 西部大開發”, 「Issue Paper」 2003. 05. 26, <http://www.seri.org/fr/fPdsV.html>
- 尹翔頌,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중국 서부 대 개발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점”, 월간무역, vol.442, 2003.07.
- 이광희, “중국의 서부 대 개발 전략 연구: 중경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2002.
- 인터넷 한겨레, “21세기 대 역사' 서부 대 개발 다시 그려지는 대륙의 지도”, 2003. 01. 15. <http://www.hani.co.kr>
- 정민정, “중국서부지역의 대외개방과 외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2001.
- 주중국대사관, “중국 서부 대 개발 정책”, 중국 서부망, <http://www.chinawest.com.cn>
- 최순화,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요인”, 삼성경제연구소, 2001. 10. 24.
-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서부 대 개발과 우리기업의 진출방향”, 2001. 1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서부 대 개발 추진으로 균형발전 도모”, 2001. 05. 01.
- 함영훈, “[동북아 중심을 향하여] (14): 한중협력 중국 서부 대 개발”, 디지털 타임스, 2003.07.08.
- 鄒東濤 編, 「中國西部大開發全書」, 第1卷-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0.
- 溫世仁 著, 「西部開發十年可成」,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 胡永科 編, 「中國西部概覽: 青海」, 北京 民族出版社,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Western Part Development and the Investment Promotion of Korean Firms in West China

Baek Tak Seon*

China has achieved enormous progress in economy since it opened its door to the outside world and pursued reforms in the 1980s.

However, Investment centered on the Eastern part of China caused a severe economic disparity between East and West.

Accordingly, the Chinese government launched a huge project named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Strategy aimed at narrowing the regional disparity.

Western area comprises 71,4% of the Chinese territory and holds over 60% of its national resources. So the Chinese government offers a variety of incentives and tax benefits to foreign inves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west China.

Nonetheless, a lot of obstructions to investment in the area still remain. That is, Inefficient administration makes the processes in public offices more complicated, skilled workers and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are short in number and transportation systems including roads and railways are still in weak state.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current poor business environment to attract increased foreign investment .

For Korean firms to make way there, they need to conduct in-depth research in the area and set up concrete plans with a long term prospect.

Keyword : investment, regional disparity, development, incentive, human resources

*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